

“지뢰다 아니요?” 부인 마지막으로 향에 속겠다 집안이 넓습니다 다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주 죽으라고 환장을 하네요....그 똥 고집을 끝까지 못 버리는군요”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제

“무슨말인지?”한국산병원과게브란스병원에서검사받았는데같은결과가나왔습니다사실

“동북 심양은 중국에서 미세먼지 2번째, 화학 오염 1위 도시인데. 그곳에 가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겠다는 것 입니다. 참 내.....박목사님이 많이 힘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아무런통증도없었고,정기검사라고생각을했는데.....어떤치료를받을수있는상

“일단 제신으로이통증과그고집을하세용이 라고합니다당 의사들이한대검진행하지않아

그리고 전화를 내려 놓고, 답답함을 가지고 휴게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뜨거운 해 빛을 손으로 만지면서 생각에 잠겨 봤습니다. 그 동안 내 손으로 떠나 보낸 암 환자들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고 있는분들이아직점아무엇일까없다고합니다너무없다고합니다그래서인마지막날에향에있고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초 긍정 마인드 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믿어주는 마음과 가족, 이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눈빛 이었습니다. 싶다고 해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영숙씨는지금웨신을 할수없는정도로기력이

그런 분들은 나의 80% 이상 생존 지표에 들어갔고, 지식이 많은 교수, 유명한 의사돈이 많은 고집불통 사장, 회장들 처럼 죽음으로 정리한 분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기존 지식과 사회적인 관습과 같은 똥 고집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열린 마음이 없었지요.....열린 마음이 열린 세상을 받아 들인다는 뜻을 이해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2층의 진료실로 내려왔습니다.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날 저녁 웨신으로 친구요정이 들어왔습니다. 박 목사님과 이영숙 공동 웨신 방 이었습니다. <정도 세미나에서 말씀 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군요...>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가 권 선생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다고 김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아직 미숙한 저희 들이기에 넓은